

고 소 장

1. 고소인*

성 명 : 김소정 (가명)

전화번호 :

주민번호 :

직업 :

주 소 :

2. 피고소인 인적사항

성 명 : 신경석

전화번호 :

주민번호 : 90년생 추정

직업 :

주 소 :

<고소요지>

별지첨부

2025. 03. 29.

고소인 김소정 (인)

안양동안경찰서장 귀하

저는 2019년 3월 사귀던 이수환이라는 연인의 권유로 더블 데이트를 하게 되었고 그의 친한 형인 신경석이라는 사람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교제하던 연인인 이수환과 친한 사람이었기에 거부감 없이 더블데이트에 응했고, 넷이서 만나 술을 마시고 새벽 쯤 2차로 가해자 신경석의 여자친구인 O주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O주영 집에서 넷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수환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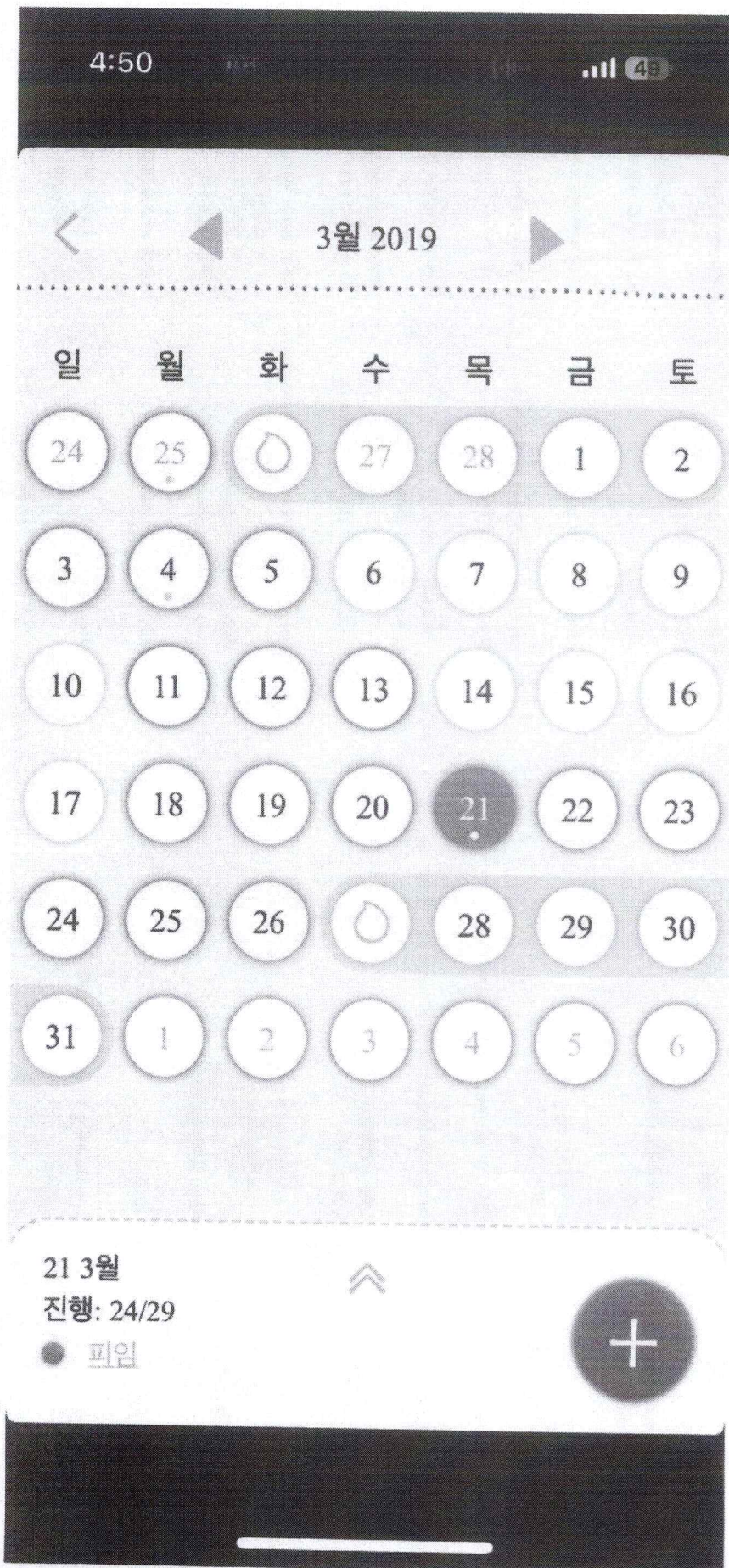
그 이유는 당시 이수환이 그 가해자의 여자친구인 O주영과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이유로 제가 질투하듯 말했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있던 중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가해자가 분위기를 흐린 것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식으로 저를 바깥으로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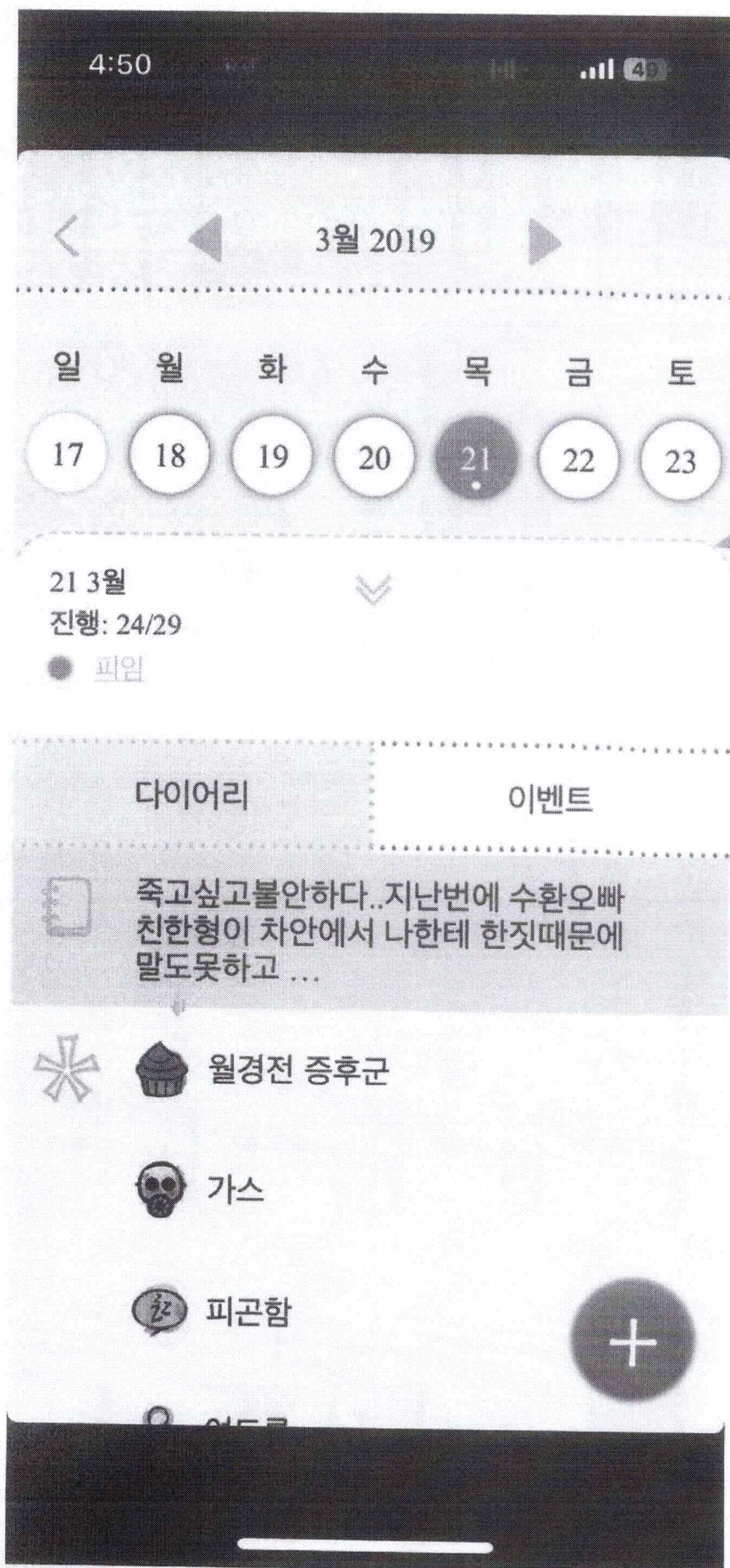
저는 별 의심 없이 알겠다고 하고 따라 갔고, 가해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본인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이야기를 해 저는 가해자의 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인의 친한 형이기에 저에게 그런 짓을 할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단순히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차에 타자 니 남자친구(이수환)와 자신의 여자친구를 의심한다고 화를 내며 저에게 이렇게 하면 니가 의심한 상황보다 니(저)가 더 잘못된 게 되는 거라며, 저를 제압 후 제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고 저에게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을 원합니다.



→ 저는 생리주
근 몇년간
(약 8-9년 자제)
기록 해 보고 있고
당시 3월의
기록도 남아있을
니다.



이렇게
생각 주기가
시작 되기전
불안한 마음
피해 사실을
적어둔 메모도
남아 있습니다.

작성자 닉네임

가영

연락처

010-5716-6753

피해자와의 관계

지인 (피해자의 당시 교제하던
남자친구의 친한 형)

가해자는 당시 제가 만났던 남자친구의
지인 (친한 형) 이었습니다.

성별

여

나이

32세

거주지역

경기도

↑



비공개상남

6년이 다 된 일인데, 최근 제 지인이 비슷한 일을 겪어 저도 겪었던 일이 악몽처럼 떠올라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고 신고하여 모두 밝히고 싶다는 생각에 글을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9년 사귀던 이수환이라는 사람과 더블 데이트로 그의 친한 형인 신경석이라는 사람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관련한 사진과 기록들이 휴대폰을 바꾸고 시간도 많이 흘러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사귀던 이수환과 친한 사람이기에 거부감 없이 더블데이트에 응했고, 넷이서 만나 술을 마시고 2차로 신경석이라는 가해자의 여자친구인 주영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여자친구 집에서 넷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사소한 문제로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그 가해자의 여자친구와 너무 다정하게



그 이유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가 그
가해자의 여자친구와 너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이유로 제가
질투하듯 말했었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명이 있던 중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가해자가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밖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별 의심 없이 알겠다고 하고 따라
갔고, 가해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본인의
차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이야기를 해
저는 가해자의 차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까지만 해도 저는
어차피 저의 남자친구의 친한 형이기에
저에게 그런 짓을 할 거라곤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정말
단순히 차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갑작스럽게 문을 잠그고
저에게 니 남자친구(이수환)와 자신의
여자친구를 의심한다고 화를 내며 제
옷을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고 저에게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리
저에게 이렇게 하면 니가 의심한



가해자의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하면 니가 의심한
상황이랑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 이제
니가 더 잘못된 거 아니냐며, 왜 자기
여자친구랑 니 남자친구랑 그런 것처럼
말을 하냐고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술에도 취한 상태였으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 무섭고 두려운
나머지 저항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며 차에서 내려 다시 그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로 두려움에
오히려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 가해자의 당시 여자친구였던
O주영에게도 말을 못하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인 이수환에게도 사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모두에게 털어놓으면 저에게 해코지를
할 만큼 그 친한 형이라는 사람이

포려져서 거기 때묻고 나그더 나라이



당시에 제가 이야기를 하지 못한 이유는
모두에게 털어놓으면 저에게 해코지를
할 만큼 그 친한 형이라는 사람이
폭력적이었기 때문이고, 사귀던 사람의
친한 형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귀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어긋날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여자친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두려움에 떨며
이제까지 말을 못하고 지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 사람이 꼭
죄값을 치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기억으로 매일 악몽을
꾸고 관련한 사건들이 나오면 트라우마
증상으로 손이 벌벌 떨립니다..

최근 관련자(이수환의 친구- 가해자를
함께 아는 사람입니다)의 연락처는 아직
남아있는데, 관련자에게 수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으로 가해자인 신경석의
연락처를 요구했더니, 자신의 지인의
개인정보라며 연락처를 줄 수 없다는
연락만 돌아왔습니다.. 뗏뗏하지 못하니
여러번 고요도 거부하고 이수환의



연락처 공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된다면 조사를
받으며 그 사람이 한 짓들이 진실로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에 해바라기
센터에 상담 요청 드립니다..

그 사람을 마주할 자신은 없으며 연락을
직접 할 마음도 지금은 없습니다.. 너무
괴로운 마음에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용기를 가지고
이전의 일들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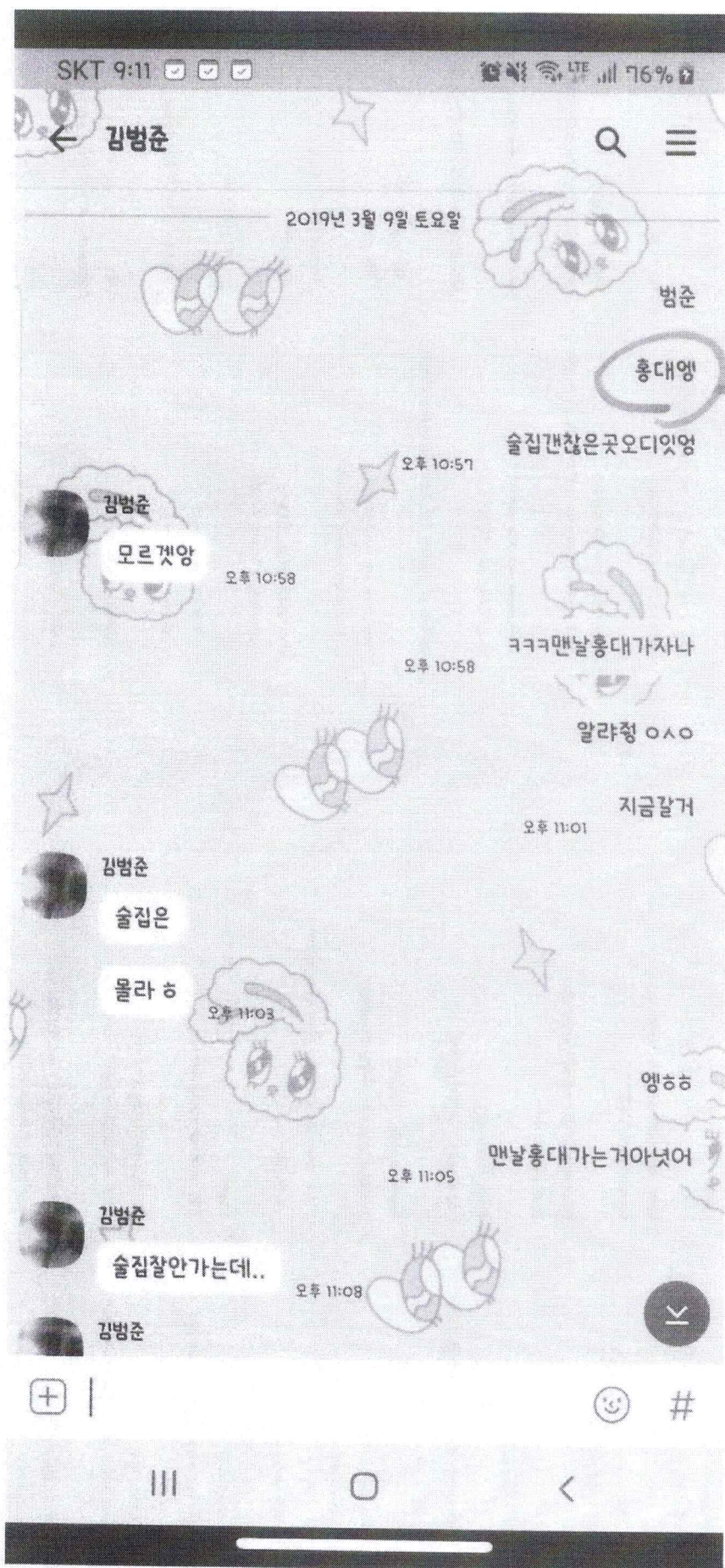
제가 한 이야기들은 과장 없이 전부
사실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상담 전화
드리기 전에 글로 먼저

남깁니다..도와주세요..혼자 참아오며
잊자, 잊자 한 것들이 터져 나와
더이상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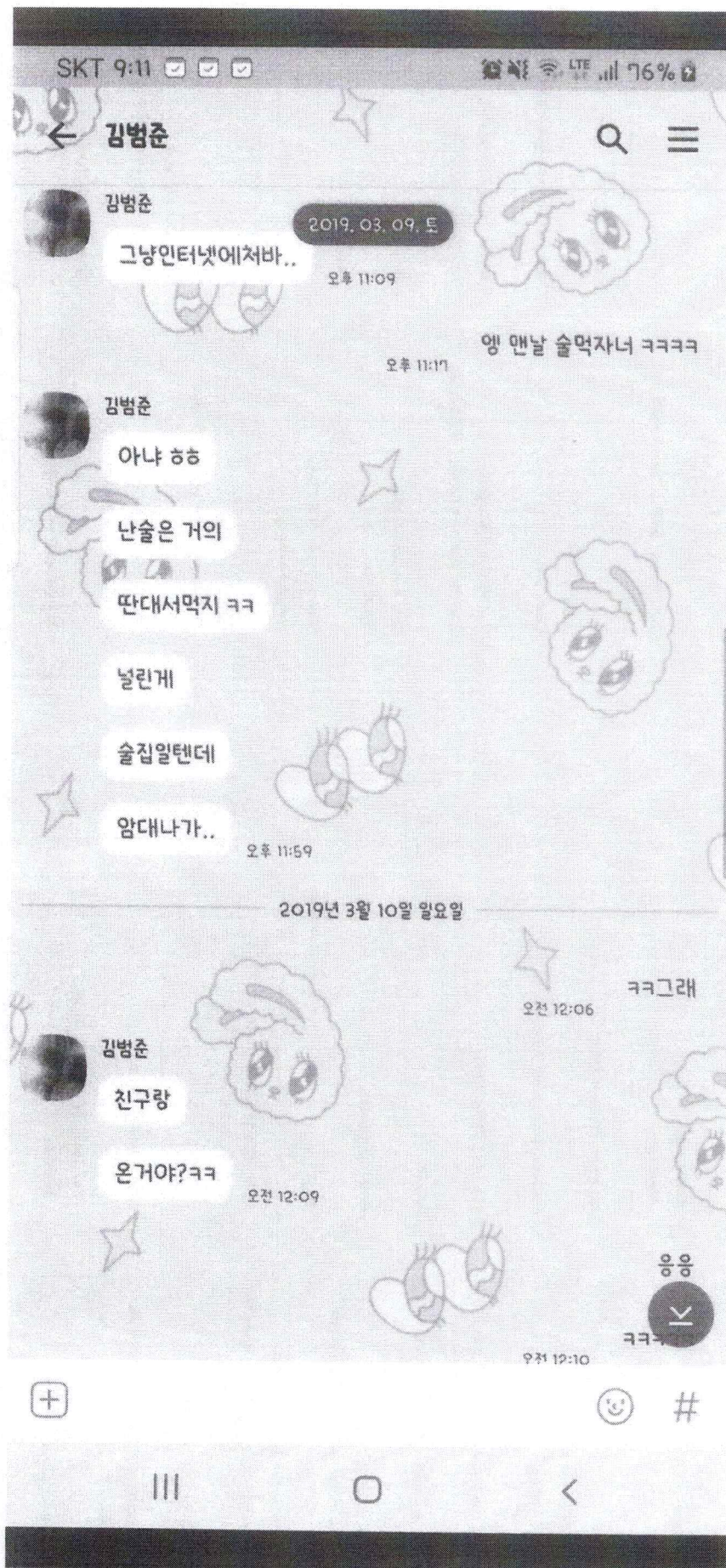
말 못한 제가 한심한 마음까지 들고
제가 더럽게 느껴져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에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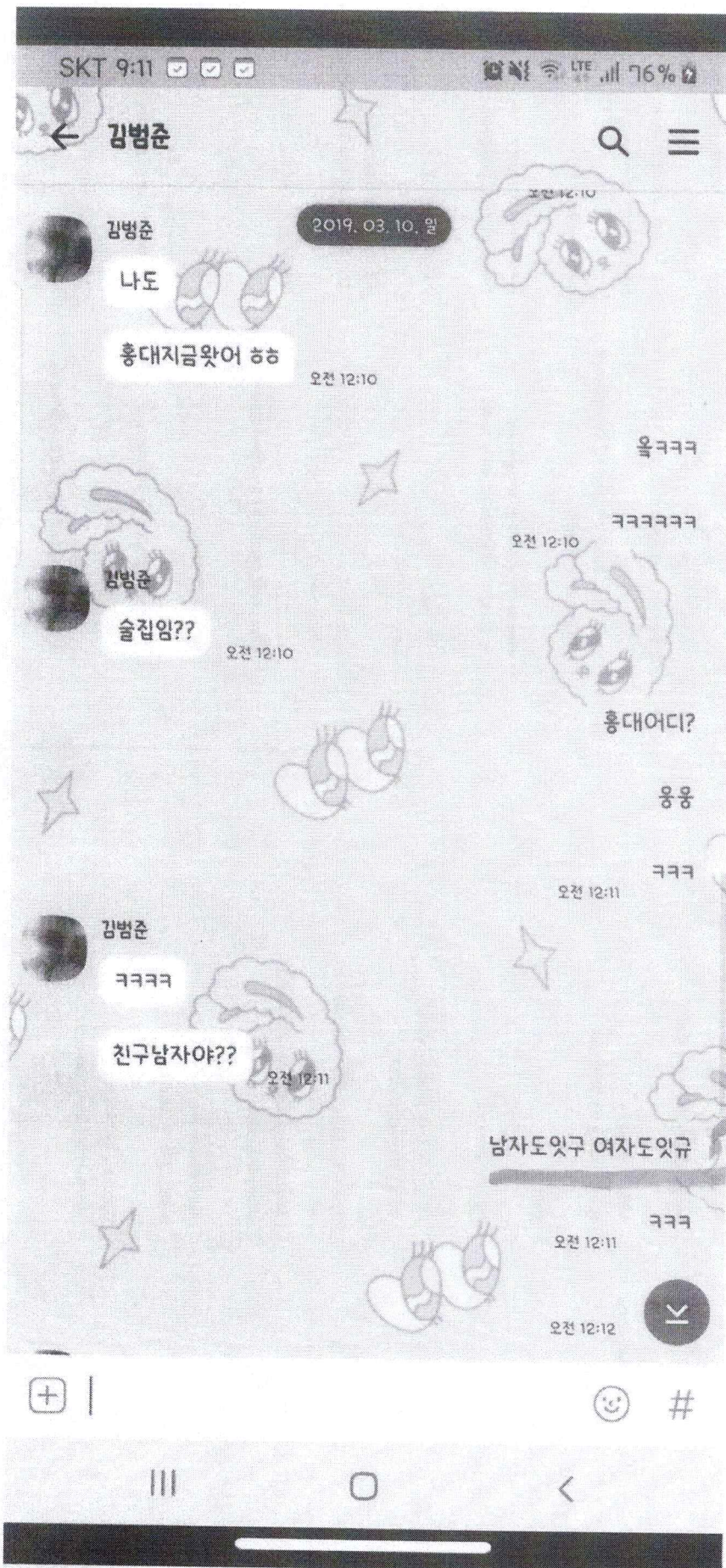
이제는 이전 일들이 계속 떠올라
정신과에서 약 처방이 필요할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용기 내어 상담 신청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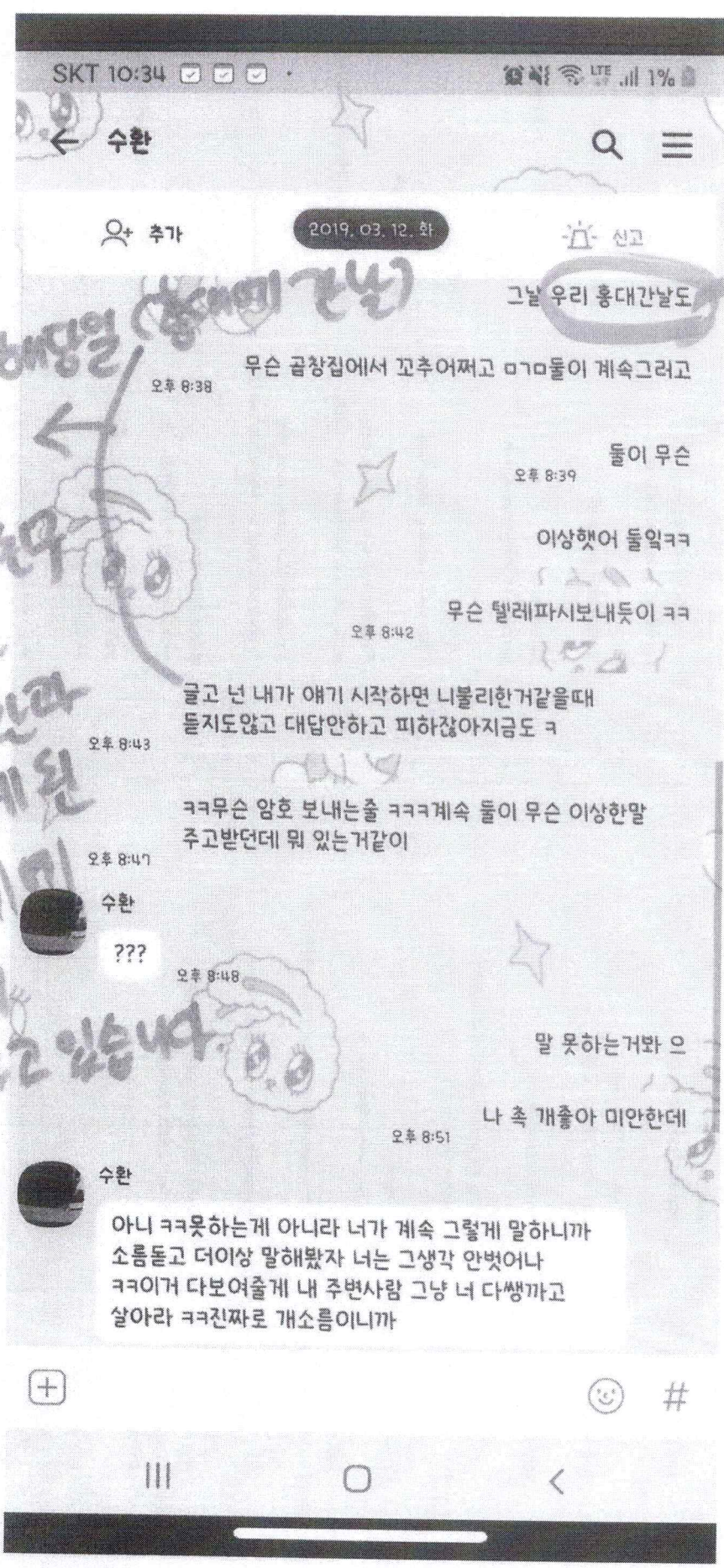


지인에게
 홍대에 가거워
 가해자 포함
 4명과 이동
 전 갈곳을 추천
 받기 위해 지인
 과 4눈키득
 임니다.





이숙환
저(이가역)
O 주역,
기네과 신명성
을 맡았습니다.



이수환,
너(이가영)
가해자 신경학
과 그의 여자친구
였던 ○주영
이렇게 4명이
홍대에 갔어
그의 여자친구
인 ○주영 집에
가게 되었어

SKT 10:34

LTE 1%

수환

Q

추가

차단

신고

오후 8:53

지가 소개시켜줘놓고 뭘 땡까고 말고야 욕하고싶은거
꼭참고있으니까 개소름이고 어찌고 입 함부러놀리지만

오후 8:54

주변사람들도 내가 보자한것도아니고 너때문에 본건데
웃긴다 진짜

소름돋는다고 나를미친년만들어버리네 내가그렇게
느꼈다는데..참 ... 뭐라고 잘 얘기라도 해줬음 몰라 ㅋㅋ
그런게 아니라고 오해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도못하니까 나는계속 그런생각 들었던건데 난왜
나보고만 그래;

앞으로 그런상황안만들고 그런행동안하겠다고
했어야맞는거야 ; 나야말로 소름돌아진짜 ;
썩한 기분 들면 뭔가 있는게 내 경험상 여러번이있어서
하는말인데 진짜 무슨 미친년취급을 ㅋㅋ 나도 그런취급
받기 싫고 기분더러워서 더 안해;; 진짜 헤어진거니까
너나 제발 연락하지마

오후 9:07

연락왔길래 내가 느꼈던거 다 담장해주니까 또 지가
피하고 그만하재 존나 웃긴다 :: 자존심도 참 대단하네
그럼 그자존심으로 앞으로 연락 하지마 ; 역시네 역시다
니가 그때 기분썩하게 한거 미안하다고 할리가 없지
하고 그냥 끝내면되는건데 그걸 못하니까 내가 계속
기분이 썩하지
다시연락 하지마 진짜

오후 9:10

무슨 망상병 환자를 만들어버려 ㅋㅋ 미안한데 나
말짱하고 니가 한 행동도 정상은 아니었다는 것좀
알아주라 알겠지 안녕

오후 9:11

+

😊

#

|||

○

<







신경석



친구 추가



메시지



더 보기

🏠 경기도 남양주 거주

📍 경기도 남양주 출신

경석님 정보 더 보기

사진





5:09

LTE 67

< 999+

김병건



솔직히 말하면

비협조적으로 하고싶은건 아닌
데

내가 연락처를 막 알려주기는

좀 그래

내입장도 이해하지?

오후 9:10

아니 그 당사자는 내가 사귀
그사람이 아니어서

어쨌든 통해서 다른사람 연락
처를 물어봐야 해서 그래

부탁할게

오후 9:11

그러면 우선 그 사람 연락처만
전달 부탁해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니고 그사



김병건 하자



메시지 입력



5:09

LTE 67

< 999+

김병건



어떤 사람?

오후 9:12

내가 사귀 그오빠의 친한 형이
있던 사람

오후 9:13

그리고 못 알려주겠다면 대신
나한테 연락하게끔 내 연락처
전달해줘도 돼

부탁할게

오후 9:14

김병건

내 입장에선 무슨일인지 설명
도 안해주고

오후 9:14

김병건

갑자기 불쑥 연락처달라는게

좀 그래

오후 9:15

너한테 지극 이야기를 하고 싶

김병건 하자



메시지 입력



5:09

LTE 67

< 999+

김병건



너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
은데 나도 이게 큰 상처라서 그
래

오후 9:15



김병건

어쨌든 개인정보잖아 내연락
처도 아니구

오후 9:15

그때 사귀던 사람이랑 나랑
그 친한 형네 커플이랑 네명이
서 데이트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일어난 이야기야

오후 9:16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니가 직
접적으로 관련된 일이 아니니까
너한테 이야기해서 의미가 없
잖아..
그래서 부탁하는거야

오후 9:17



김병건

너가 부탁하는건 아는데



김병건 하자



메시지 입력



5:09

LTE 67

< 999+

김병건



너가 부탁하는건 아는데

연락처 알려주는건 좀 그래 미
안해

오후 9:21

수사기관에서 연락 가면 어짜
피 알려줘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알려줬으면 해

그럼 너한테 연락 안 갈거야

오후 9:25

김병건

그럼 내가

친구한테는 일단 물어보고 알
려줘도

된다고 하면

알려줄게

오후 9:30

김병건 하자

너가 좋아하는 사람이



메시지 입력



5:09

LTE 67

< 999+

김병건



DOOL

너가 말하는 형이

경석이형이야?

이름 기억해?

오후 10:08

응 헤어디자이너이던 언니랑 사
귀던 사람 맞지

오후 10:09



김병건

경석이형 번호 알려주면

수환이 번호는 안알려줘도되?

여자친구랑 같이있어서

약간 곤란해 하는거같아

오후 10:10

응

오후 10:11



김병건 하자



메시지 입력



5:09

LTE 67

< 999+

김병건



999+

근데 어차피 나도 알게될텐데

무슨 일인지 말해주는

좀 불편해?

오후 10:11

응

오후 10:11



김병건

그 경석이형이랑 통화했는데

일단 잠깐만 기다려달래

그리고

의진은 유부남인데

이시간에 내가 연락하기가

나도 좀 그래서



김병건 하자



메시지 입력



5:09

LTE 67

< 999+

김병건



미안한데 다들 연락처 알려주
기가 곤란하다네

오후 10:49

2025년 3월 19일 수요일 >

김병건에게 답장
일단 잠깐만 기다려달래

기다려달랬다가 연락처 못주
겠다는 건 뭔데 ㅋㅋ 제발저리고
있네 그래 그럼 경찰서에서 보
자고 전해줘 너희도 나이먹고
참 변함없다.. 양아치같은 새
끼들아.. 너 신경석 그새끼가
나한테 더블데이트때 한 짓 니
가 알기는 해?

오후 12:16

❗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오후 12:17

김병건

나는 그냥 말 그대로 전했을
뿐이야

김병건 하자

김병건



메시지 입력



5:09

LTE 67

< 999+

김병건

Q ≡

참 변함없다.. 양아치같은 새끼들아.. 너 신경석 그새끼가 나한테 더블데이트때 한 짓 니가 알기는 해?

오후 12:16

!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오후 12:17

김병건

나는 그냥 말 그대로 전했을 뿐이야

오후 12:26

김병건

본인이 의사거절하는데

내가 어떻게해야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한테 언제 양아치 처럼 군적있냐?

말은 바로라자

하자

오후 12:27

+

메시지 입력

☺

#



△ 3월 9일 밤 네명이 모이고 한차에 옮겨 타서 뒷자리에 앉아 있던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운전석에는 가해자 신경석이 앉아 있고, 옆자리에는 주영언니가 앉아 있습니다.



△당시 연인이었던 이수환이 뒷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을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9:37

LTE 4

< 사브칼국수 사무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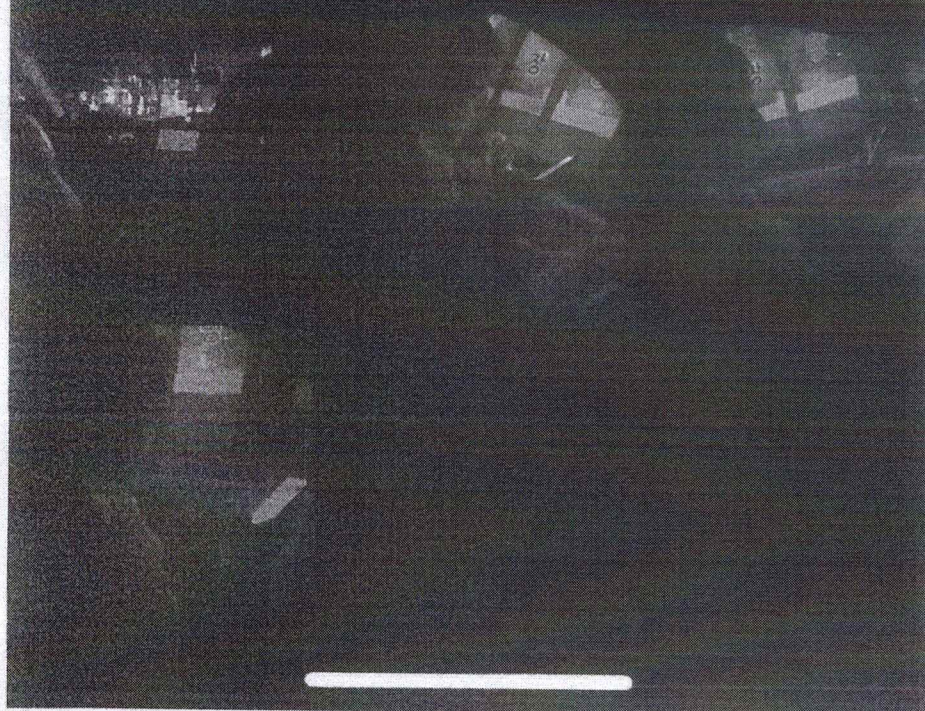
별내5로5번길

별내5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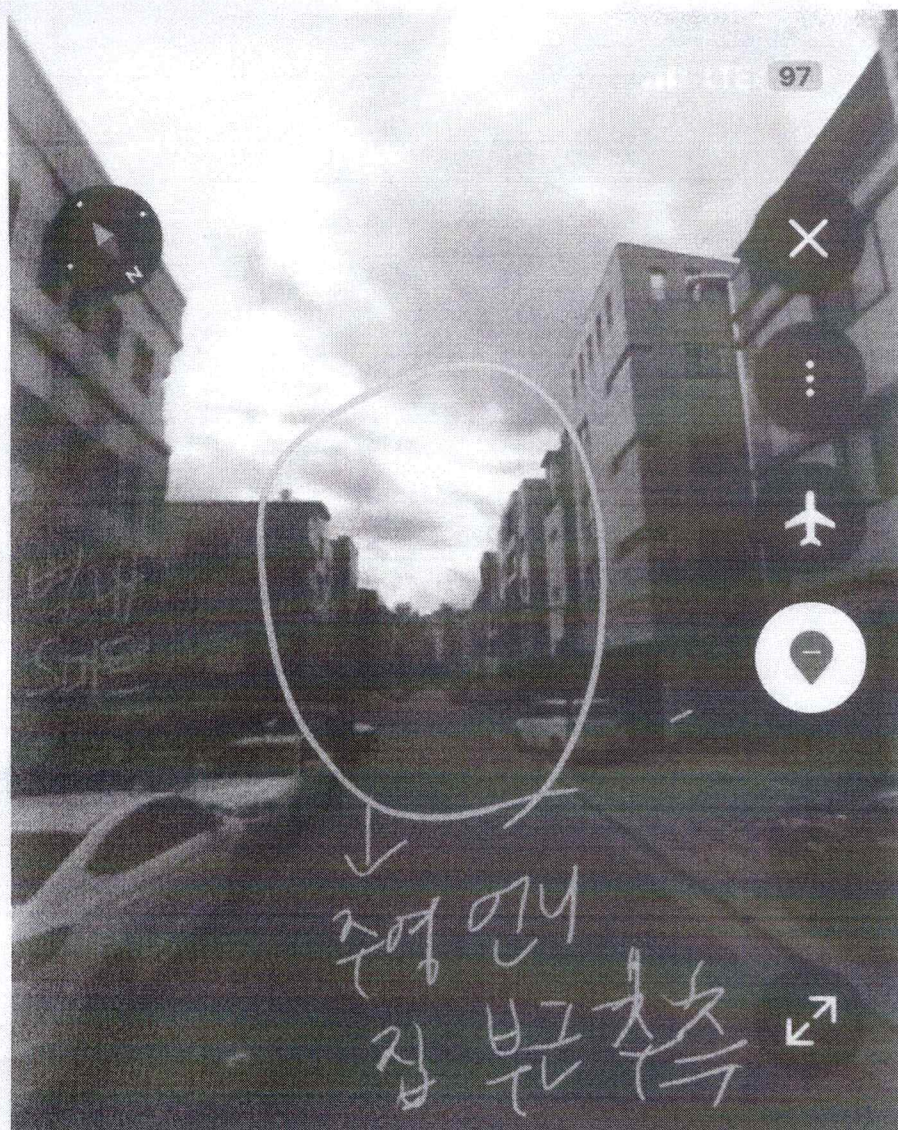
2019년 3월 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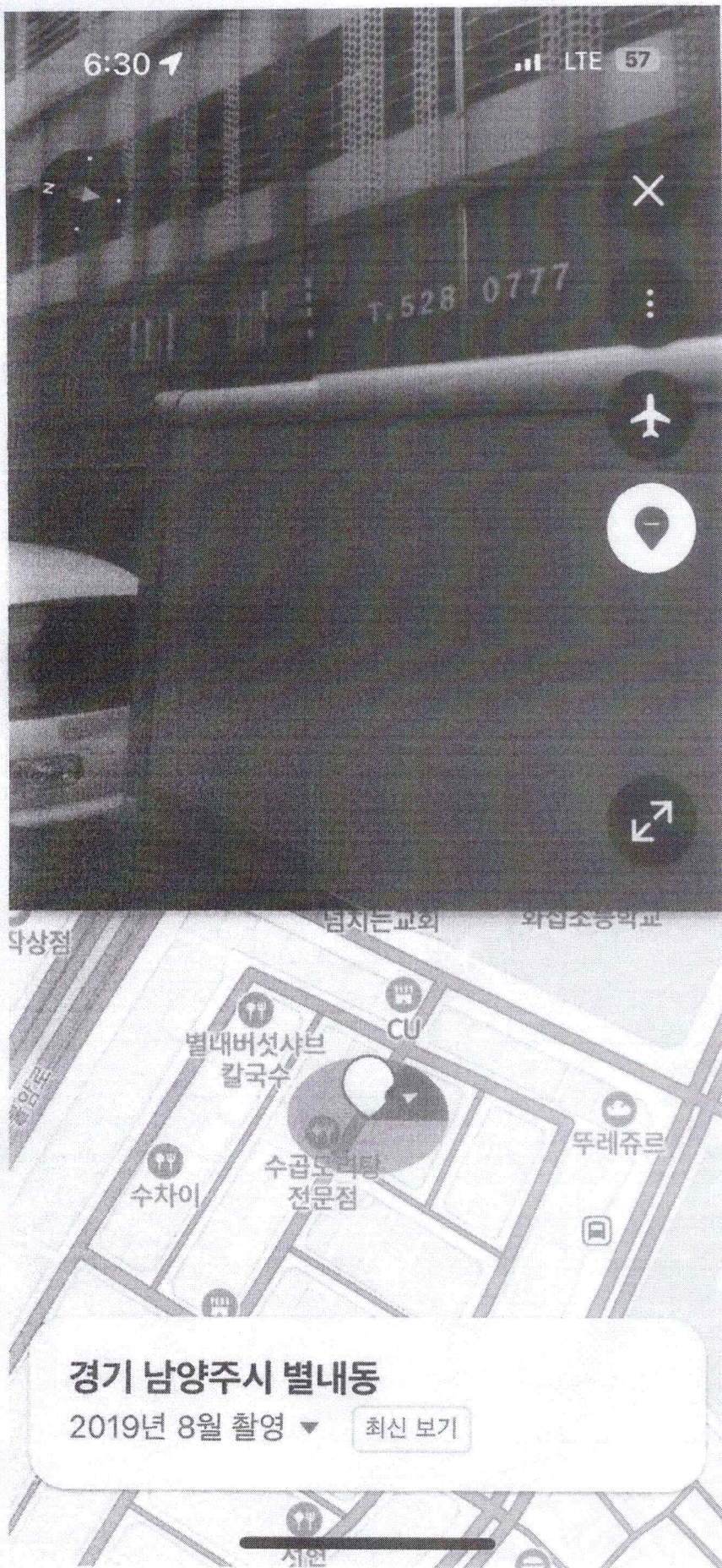
2019년 3월 9일 토



△첨부드린 사진의 위치정보에서 상단 해당 위치 부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영언니의 집 주변을 떠올려봤을 때 기억나는 위치는 이 부근입니다. 2019년 3월 당시에는 근처에 '별내S마트'가 있었었던것이 기억이 나서 당시 마트 사진도 함께 올립니다.



△당시 사진처럼 '별내S마트'가 있는 골목이었고, 주영언니가 해당 골목에 살고 있었던 것이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 경기 남양주시 별내5로23번... X



경기 남양주시 별내5로23번길 4-25

32km

도로명 별내동 1083-9 우 12102

이 주소의 장소 투엑스원 스팀손세차 별... 외 1건



출발

도착

△노란 음영 부분이 예상되는 주영언니 당시 거주지입니다.

< 1% by민J



예약

문의

소식 가격 스타일리스트 스타일 리



실장 주연 ✓

1% 주연실장 입니다 본연의 아름다움
에 생기를 더해드리겠습니다. 단순... 더보기 >

예약

문의



△ 당시 가해자의 여자친구였던 주영언니의 현재 근무지와 사진입니다.

도움을 얻고자 SNS 계정을 찾아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현재 SNS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진 술 조 서

성 명 : 김소정(가명)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미기재

직 업 : 생략

주 거 : 인적사항 미기재

등록기준지 : 생략

직 장 주 소 : 생략

연 락 처 : 자택전화 휴대전화 생략
직장전화 전자우편(e-mail)

위의 사람은 신경석에 대한 강간 피의사건에 관하여 2025년 3월 29일 14:30경 안양 동안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진술녹화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혐)의자 신경석과(와) 지인관계였던 사이입니다.

1. 인적사항의 생략

위 사람은 (성특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의 우려가 있어)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 때 사법경찰관(리)은 진술인 김소정(가명)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하다.

문 : (피해자인 경우) 담당조사관으로부터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 및 지원
정보에 대한 안내서를 교부받고, 가해자로부터 보복범죄 우려 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받았나요.

답 : 네. 안내는 받았고, 나중에 위험할 때 신변 보호 신청하겠습니다.

문 : 진술인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거나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분인가요.

답 : 아니요.

문 : 진술인은 영상녹화 동의하는가요.

답 : 아니요. 영상녹화 없이 진술하겠습니다.

문 : 가명 김소정으로 조사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답 : 네.

문 : 진술인은 피고소인 신경석을 강간으로 고소하였는데, 맞는가요.

답 : 네.

문 : 피고소인 신경석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답 : 이수환이라는 제 연인이었던 사람의 친한 형이였고, 이수환을 통해서 더블 데이트를 하자는 제안을 받아서 제 연인의 친한 형이였기 때문에 거부감없이 더블 데이트에 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안면을 트고 알게 되었습니다.

문 : 이수환이라는 사람은 현재 연인은 아닌가요.

답 : 아닙니다.

문 : 이수환과 연인이었던 기간은요.

답 : 2018년 12월 중순, 말경부터 완전히 헤어진건 2019년 5월 초쯤에 헤어졌어요.

문 : 피고소인 신경석(이하 신경석)과 처음 알게 된 건 언제인가요.

답 : 2019년 3월 초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총 세커플이 펜션에 놀러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커플들끼리 놀러 간 거였거든요. 펜션에 놀러간거를 찾아보니깐 3월 2일에 1박 2일로 갔고, 그때 커플들끼리 놀러 가서 안면을 트고 어느 정도 친분을 쌓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 스쳐 지

나가다가 얼굴을 본다거나 연인한테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만난 건 커플들끼리 펜션 가서가 처음인 것 같아요.

문 : 신경석과 더블데이트는 몇 번 정도 하였나요.

답 : 2019년 3월 3일과 강간 피해를 입은 날 총 두 번입니다.

문 : 신경석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일시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 : 6년 가까이 된 일이라 정확한 일시는 잘 기억이 안나지만 제 핸드폰 앨범에 있는 사진을 보고 그때 기억을 떠올려보자면 2019년 3월 9일에서 3월 10일 넘어가는 새벽 2시에서 3시로 추정되고요. 장소는 신경석의 차 안입니다.

문 : 어떤 사진을 보고 추정을 하였나요.

답 : (진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을 보여주며) 앨범을 뒤져보다가 추정을 해 본 건데, 그날 연인이었던 이수환이랑 낮부터 데이트를 하였고, 2019. 3. 9. 영화표가 있는데, 영화를 보고 신경석 여자친구 주영 언니 집 근처에 이수환의 차를 세워두고 신경석 커플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진이 있는데, 네명이 탔는데 저는 신경석의 차 뒷자리 앉았고, 운전석을 찍은게 있어요. 그게 2019. 3. 9. 오후 10시쯤이에요. 신경석의 차를 타고 사진 찍은 위치를 보니 홍대를 갔어요. 홍대는 3. 10. 자정넘어서 도착한 것 같아요. 그리고, 놀다가

신경석의 여자친구인 주영 언니의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2019. 3. 9.에서 3. 10. 넘어가는 새벽에 있었던 걸로 추정돼요.

문 : 장소는 신경석의 차 안이라고 하였는데, 차가 주차되어있던 위치는 어디였나요.

답 : 신경석의 여자친구인 주영 언니 집 근처였던 것 같아요. 언니 집이 남양주 별내동이었어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 마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로드맵으로 보니, 별내 5로 근처였던 것 같아요.

문 : 신경석의 차에 대해서 기억하는게 있나요.

답 : 좀 컸던 것 같고, SUV 차였던 것 같은데, 차량 번호나, 색상은 기억이 안나요.

문 : 신경석의 여자친구인 주영 언니(이하 주영 언니) 집으로 가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제가 당시 별내동에 살았기도 했고, 네 명 모두 그 근처에서 살기도 했기 때문에 언니 집가서 이야기도 좀 나누자 해서 가게 된 거예요.

문 : 네 명이라고 하면 누구 누구였는가요.

답 : 저랑 그때 당시 연인이었던 이수환, 가해자 신경석이랑 신경석의 여자친구 주

영이요.

문 : 진술인은 주영 언니와 친분이 있었나요.

답 : 아니요. 그 사람도 커플끼리 펜션가게 돼서 알게 된 거예요. 얘기로만 들었지 같이 어울린거는 펜션에서가 처음이었습니다.

문 : 주영 언니의 집으로 가서부터 강간 피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기억나는대로 상세히 진술하세요.

답 : 홍대에서 곱창을 먹었던 것 같아요. 술도 좀 마셨던 것 같아요. 이수환이 주영 언니랑만 대화하려고 하고, 저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는 아니었는데, 언니네 집으로 이동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이수환한테 서운한 부분을 표현했어요. 근데, 4명이 있었던 자리에서 표현을 했더니 분위기가 좀 안좋게 됐어요. 그러다가 신경석이 표정이 안 좋아지면서 저보고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서로 연인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야기를 하러 나가는 줄 알고 따라나갔죠. 저는 밖에서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차에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차에 탔어요. 뒷자리에 탔는데, 자기도 뒷자리에 타더니 “내가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하면은 네가 내여자친구랑 수환이 의심하는 것보다 더 나쁜거다” 라면서 저를 제압을 하고, 바지를 벗더니.. 제가 그당시 원피스를 입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제 옷을 벗겨서 그리고 바로 삽입을 했어요.

그 때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다 보니 기억이 흐려요.. 사정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삽입 했던건 기억나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몇 번 피스톤질을 했던 것 같고, 사정은 안했고, 그러고 옷을 다시 입었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신경석씨 여자친구 집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고 얼마 안지나서 각자 집으로 갔고, 사귀던 남자친구가 데려다 줬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사실이라 어느 누구한테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대학교 3학년이라 너무 바빴던 시기도 했고, 친구한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소문이 날까봐 얘기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도 혼자 잊어야겠다 잊어버리자 혼자 생각만 했었어요. 성적으로 수치심도 들긴 했지만 폭력을 당했다는 느낌이 더 들었어요. 이렇게 뒤늦게 고소를 한 거는 그때 당시 저를 못지켰다는 생각에 너무 한이 됐고, 저한테 미안해서 였습니다. 미디어에서 관련된 성범죄 사건을 보면 항상 그 때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든 늦었지만 내가 피해를 당했다는걸 알리고, 가해자가 본인이 잘못했다는 거를 상기 했으면 좋겠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가해자의 행위가 사람 자체 인격을 짓밟는 행위였던 것 같아요.

문 : 신경석이 진술인에게 잠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할 때, 이수환과 주영언니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답 : 아무런 말도 없이 가만히 있었어요.

문 : 진술인은 바로 응했나요.

답 : 네. 단순히 이야기하자고 하니깐 저는 나갔던 거죠.

문 : 차로 들어가게 된 상황을 진술하세요.

답 : 집에서 나와서 차로 이동하는 동안 말이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가해자를 따라갔죠. 따라가다 보니깐 차에 왔고, “차 안에서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알겠다고, 앞자리는 여자친구분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뒷자리에 탑승을 하게 됐어요. 제가 뒷자리에 타니 제 뒤를 따라서 가해자도 뒷자리에 따라 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던 것 같아요.

문 : 문을 잠갔다고 생각한 이유는요.

답 : 그냥 잠갔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 : 주영 언니 집과 차가 주차되어있는 장소의 거리는 얼마나 됐나요.

답 : 바로 앞이 었어요. 50M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에 가자고 해도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수환 오빠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나 보다 생각했죠. 조용히 얘기를 나눠보자 라고 생각해서 아무 거부감 없이 차로 갔던 것 같아요.

문 : 차에 탄 뒤 상황을 진술하세요.

답 : 대화 했던 기억이 안나고, 타자마자 그랬던 느낌이거든요. 그러다보니 더 당황했고, 대처를 못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던 말을 그런 행위로 보여주면서 말을 대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 : 차에서 아무런 말이 없었나요.

답 : 대화는 없었던 것 같고, 가해자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네가 의심한 것 보다 더 나쁜 행위 아니야” 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고 삼입을 했던 것 같아요.

문 : 신경석씨가 바지를 벗던 부분을 진술하세요.

답 : 가해자가 바지를 벗고, 아까 그 말을 했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 옷을 벗겼어요.

문 : 신경석이 바지만 벗었나요.

답 : 바지와 속옷을 벗었어요.

문 : 당시 신경석의 옷차림을 기억하나요.

답 : 검은색 상의였던 것 같고, 하의는 기억이 잘안나요.

문 : 신경석이 진술인의 옷을 벗긴 부분을 진술하세요.

답 : 바지를 억지로 벗긴게 아닌 것 같아서, 블라우스랑 치마를 입었던지, 원피스를 입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쉽게 벗졌던 것 같아서...

문 : 당시 진술인의 옷차림을 기억하나요.

답 : 블라우스랑 치마였던 건지, 원피스였던 건지 정확하게 기억 나지 않지만 바지를 입고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문 : 옷을 벗졌다고 했는데, 진술인을 나체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인가요.

답 : 위에는 입고 있었고, 하의만 벗겨졌던 것 같아요.

문 : 하의라고 하면 팬티도 벗겨졌다는 것인가요.

답 : 네. 팬티를 벗겨서 옆에 뒀던 것 같아요.

문 : 벗길 때 진술인의 반응은요.

답 : 아예 저항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소리는 치지는 못했고, 왜그러냐고... 근데 그게 너무 짧은 시간에 발생한 거라서 뭔가 몸을 버둥거렸던 것 같아요. 그

했는데도 저를 붙잡고 있으니깐..

문 : 어디를 붙잡았나요.

답 : 아마 다리와 팔이었던 것 같아요.

문 : 다리와 팔을 어떻게 붙잡았는지 진술하세요.

답 : 사실 붙잡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붙잡았는지 기억이 안나요. 아니면 그사람
몸으로 저를 누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신경석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
리고, 바로 제 옷을 벗기고 삽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단시간에 일어나 일이
라 어떻게 붙잡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문 : 신경석이 진술인에게 성기를 보여줬을 때 발기가 된 상태였나요.

답 : 발기가 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문 : 삽입 당시 자세를 진술하세요.

답 : 옷을 벗기고, 제 다리를 양쪽으로 벌리고, 다리를 들어올리고, 제 몸위로 올라
탔던 것 같아요.

문 : 다리를 벌리고, 들어 올릴 때 저항하지 못했나요.

답 : 술도 먹은 상태여서 힘이 안 들어가지는 상태였고, 순식간에 제 옷을 벗기고 저를 밀어 눕힌 뒤에 삽입을 한거라 크게 저항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문 :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나요.

답 :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차에 타자마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네가 의심한 것보다 더 나쁜 행위 아니야”라면서 제 옷을 벗기고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제게는 위협이었고, 폭행이었습니다.

문 : 삽입을 하고 몇 번 피스톤 질을 했다고 했는데, 몇 번 정도 였던것 같나요.

답 : 엄청 많이는 아니였고, 위협을 하려는 의도 였던게 느껴졌고, 사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많아봤자 세 네번이었던 것 같아요.

문 : 피스톤질을 끝내고, 난 뒤 상황은요.

답 : 피스톤질을 몇 번하고 바로 바지와 팬티를 입었고, 저도 옆에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리고 저도 따라서 내렸어요.

문 : 대화는 하지 않았나요.

답 : 아니요. 안했던 것 같아요. 그 행동으로 자기가의 말을 대신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렇게 아무말 없이 주영 언니 집으로 갔던 것 같아요.

문 : 주영 언니 집으로 간 뒤 상황은요.

답 : 언니 집으로 가니 제 연인이랑 주영 언니는 그대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 일이 있었던 직후였고, 피해 당시 가해자의 말과 그 행동 자체가 제게는 위협적인 부분이였어서 그사람이 아무말 하지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행동자체가 제게 아무말 하지말라는 말로 들렸기 때문에 그사람도 저도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다가 누군가가 가자 라고 해서 각자 집으로 헤어졌던 것 같아요.

문 : 주영 언니 집을 나올 때 신경석도 나왔나요.

답 :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요. 근데 전 연인인 이수환이 저를 집으로 데려다준건 맞아요.

문 : 전 연인이 집으로 데려다 줄 때, 말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답 : 그럴 용기가 안났어요. 가해자랑 이수환이 친한 형 동생 사이인데 제가 얘기를 했다가 저와 이수환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두렵기도 했었거든요.

문 : 술은 얼마나 마셨나요.

답 : 술을 정확하게 얼마나 마셨는지는 기억나질 않고, 가해자도 운전을 해야했기 때문에 술을 안마셨던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아요.

문 : 고소하기 전 가족이나 친구 어느 누구에게도 얘기한 적이 없나요.

답 : 네. 이걸 말을 못했어요.

문 : 진술인이 제출한 자료 중에 '해바라기 센터 상담문의 내용'이 있는데 이건 언제 상담을 받은 것인가요.

답 : 최근 3월 중순쯤에 상담 문의를 했고, 상담을 하게 됐어요.

문 : 그리고, 제출 자료 중 '김병건'과의 카톡이 있는데, '김병건'은 누구인가요.

답 : 원래 제가 알던 지인이었는데, 김병건이 이수환을 소개 시켜준거 거든요. 김병건이랑 가해자 신경석이랑 친한 사이라서 제가 김병건한테 신경석 연락처를 물어본거예요.

문 : 당시 병원 치료를 받은 건 없나요.

답 : 정신과 상담을 받고자 시도를 했었으나 결국엔 상담을 받지 못했고, 다른 병원 진료도 받지 않았어요.

문 : 진술인은 현재 신경석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무엇이 있나요.

답 : 이름 말고는 전혀 아는거 없고, 남아 있는게 없어요.

문 : 진술인은 신경석에 대해 처벌을 원하는가요.

가-10 답 : 네. 강력히 처벌을 원합니다.

문 :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답 : 아니요.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문 : 사건을 송치하기 전 추가적으로 서면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것인가요

답 : 가해자 차 안에서 네명이 타있을때 찍은 사진이랑 주영언니 집이 어딘지 로드맵으로 찾은거랑 해바라기센터 상담한거, 3월 10일 친구랑 카톡한 내역, 이수환이랑 3월 12일에 카톡한 내역, 신경석이랑 친한 김병건과의 카톡 내역 등 필요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변경
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서명(기명날인)하게 하다.

진술자

김소정(가명)

2025. 3. 29.

사법경찰리 경사

조민정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시각	2025. 3. 29. 14:20
2. 조사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2025. 3. 29. 14:30 ☐ 종료시각 : 2025. 3. 29. 16:45
3. 조서열람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 시작시각 : 2025. 3. 29. 16:46 ☐ 종료시각 : 2025. 3. 29. 17:20
4. 기타 조사과정 진행경과 확인에 필요한 사항	영상녹화 부동의.
5. 조사과정 기재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나 의견진술 여부 및 그 내용	없음
2025. 3. 29. 사법경찰리 경사 조민정은 김소정(가명)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김소정(가명)으로부터 확인받음 확 인 자 사법경찰리 김소정 경사  조민정	